

강요배 개인전

《소소, 반색》



창파(滄波), 2015, Acrylic on canvas, 197x333cm

전시제목 : 강요배 개인전 《소소, 반색》

전시기간 : 2026년 8월 12일(수) – 2026년 9월 12일(토)

전시장소 : 학교재 본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학교재 오름 (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28 점

○ 담 당 이주연 팀장 juyeonlee@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60812-20260912_강요배_소소, 반색

1. 전시 개요

학교재는 2026년 8월 12일(수)부터 9월 12일(토)까지 강요배(1952-)의 개인전 《소소, 반색》을 연다. 학교재에서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기 쉬운, 작고 미미한 존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태도에서 출발한다. 제주에서 태어나 그곳의 자연과 역사를 삶의 토대로 삼아온 강요배는, 1980년대 민중미술의 중심에서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불합리한 사회적 현실을 화폭에 담아 온 작가다. 그의 작업 세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자연에 대한 깊은 관찰과 경외심이다. 이번 전시는 그 장엄한 시선을 내면으로 옮겨, 사소하고 내밀한 풍경으로 관객을 인도한다.

2. 전시 주제

강요배의 회화는 대상을 단순히 재현하거나 묘사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에게 자연은 그려야 할 소재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자, 삶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온 터전이다. 오랫동안 제주를 삶과 작업의 중심에 두고, 계절의 순환을 몸으로 직접 겪어 왔다. 그의 풍경은 특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의경(意景)'이다. 눈앞에 펼쳐진 형상보다 그 안에 축적된 시간의 결을 화폭에 담아왔다. 이러한 태도는 제주 4·3을 비롯한 역사 연작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진다. 강요배에게 풍경은 비극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무대가 아니다. 수많은 기억과 긴 세월을 품은 정직한 증언이다. 그는 거창한 담론이나 '민중미술'이라는 수식어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풍경 속에 삶을 새긴다.

이번 전시는 이 시선이 우리 곁에 미시적인 존재들로 자연스럽게 향한 결과이다. 넓은 시야에서 조망하던 그의 화면은 한 그루의 나무와 떨어지는 열매 한 알, 길을 스쳐가는 길고양이처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앞에 머문다. 이는 어떠한 심경의 변화나 극적인 계기에 따른 전환이 아니다. 처음부터 품어온 세계를 더욱 가까이, 세밀하게 바라보게 된 것이다. 작고 미미한 생명 또한 대자연과 동일한 질서 속에 놓여 있음을 오래도록 체감해 온 시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존재가 아닌, 서로 얽혀 있는 관계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강요배의 회화 역시 자연을 인간이 바라보는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함께 상생하는 존재로 읽힌다. 그렇다고 이를 철학적 개념이나 이론으로 설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관찰자의 거리를 지우고, 하나의 생명임을 느끼게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적 변화 때문에 재난과 불안이 반복되는 오늘날, 《소소, 반색》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거나 특정한 메시지를 앞세우지 않는다. 삶을 이루는 근원적인 관계와 공존의 감각을 되새기게 할 뿐이다. 강요배가 건네는 '반색'은 낯선 세계를 향한 감탄이 아니다. 오래도록 우리 곁에 있었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존재들을 새롭게 맞이하는 태도에 가깝다.

3. 작품 소개



영등바람

2026

Acrylic on canvas

194x259cm

갤러리 입구에 들어서면 <대서>와 <소서> 속에 담긴 폭포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절벽을 타고 수직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는 전시장 공간을 가로질러 500호 크기의 대작 <창파>에 이르러 거대한 파도의 운동으로 폭발한다. 화면을 가득 메운 물결과 거침없는 붓질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바다의 파동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보는 이를 압도적인 흐름 속으로 끌어들이는다. 두껍게 쌓인 물감과 거친 질감은 자연의 동세와 작가의 신체적 호흡이 맞는 지점을 이룬다.



나무 III

2025

Acrylic on canvas

162.2x130.3cm

<영등바람>은 입춘 무렵 제주의 바다와 땅을 휩쓰는 북서풍이자, 신화 속 '영등할망'을 맞이하는 제주의 신령한 시간을 환기한다. 제주에서는 음력 2월이 되면 풍요를 뿌려주는 바람의 신 영등할망을 맞아 해신제를 올린다. 강요배에게 영등바람은 단순한 계절풍이 아니다. 제주의 역사와 삶, 오랜 세월 땅에 새겨진 기억을 품고 불어오는 바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바람을 따라 흘러와 화면 위에서 비로소 형체를 얻는다.

이어지는 <나무> 연작은 숲이라는 집합적 풍경에서 벗어나 한 그루 나무의 몸체에 밀착한다. 거칠게 갈라진 수피와 깊게 패인 결에는 계절의 순환과 풍화의 흔적이 커커이 스며 있다. 그간 풍경의 일부이던 나무는 더 이상 배경에 머물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견뎌온 하나의 생명으로 화면의 중심에 선다.



해바라기-쿠르스크

2025

Acrylic on canvas

162x130.3cm

<해바라기-쿠르스크>는 현실의 비극을 자연의 생명력으로 연결시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전지인 '쿠르스크(Kursk)'를 작품 제목으로 삼았지만, 참상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통해 이를 은유한다. 과거 동백꽃으로 고향의 역사를 그려냈듯, 이번에는 말라버린 해바라기를 매개로 폭력이 남긴 상흔과 생명의 지속성을 함께 담아낸다. 여기서 꽃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비극을 고스란히 견뎌낸 존재로 자리하며, 언젠가 다시 피어날 회복의 가능성을 품는다.

또한 수심 수백에서 수천 미터의 심해에 서식하는 <흑등아귀> 역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커다란 입과 날카로운 이빨, 검은 몸체는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강요배는 이를 단순한 생물학적 도해로 다루지 않는다.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심해는 인간 중심의 인식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임을 암시한다.

**흑등아귀**

2025

Acrylic on canvas

116.7x91cm

빛 한 점 없는 심연에서 스스로 빛을 발해 생존해 나가는 흑등아귀의 모습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나가는 강인함을 일깨운다.

그 외에도 무척의 선명한 잎맥과 목련이 드리우는 그늘, 작은 화산섬 비양도, 짙게 우거진 녹음, 탐스럽게 익어가는 돌배나무, 물 위를 떠도는 우련, 햇빛을 머금은 일양, 고요히 서 있는 청로, 범부채와 그 곁을 스치는 나비, 희미하게 번지는 풍경인 은은경까지.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화면 속 대상들은 크고 작음의 위계 없이 저마다의 시간을 품고, 리듬을 이루며 서로를 비춘다.

《소소, 반색》은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전시가 아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유의 장이다. 전시를 따라 이어지는 여정은 특별한 것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이 아니라, 늘 곁에 있었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존재들과 다시 마주하는 과정이다.

강요배의 작품 앞에 발길을 멈추고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 역사와 생명이 본래 하나의 시간 안에서 깊이 스며 있음을 새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4. 작가 소개

강요배(1952-)는 민중미술 1세대 작가다. 80년대 초 미술그룹 '현실과 발언'의 멤버로 활동했다. 리얼리즘 회화와 역사 주제화의 새로운 지평을 펼쳐 보인 것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는다. 자연의 풍경을 단순한 객체로서의 대상이 보다는 주체의 심적 변화를 읽는 또 다른 주체로 다룬다. 작가는 삶의 풍경에 따뜻한 날, 안온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늘할 때, 혹은 폭풍이 칠 때가 있는 것처럼 작품에도 저마다 다른 감정이 담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제주에서 출생하여 197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1982년에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민중미술 동인 '현실과 발언'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시대의 현실과 모순을 화면에 담아 작품세계를 심화시켰다. 1988년부터 <제주민중항쟁사> 연작을 그리며 제주 4·3사건의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역사 주제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으며, 옥관문화훈장, 호반미술상, 제주4·3평화 특별상, 이인성미술상, 이중섭미술상, 민족예술상을 수상 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부국문화재단 등 다수의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5. 작가 약력(축약본)

1952 제주 출생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현재 제주에서 거주 및 작업

주요 개인전

2026 **소소, 반색, 학교재, 서울**
강요배: 시간을 품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24 호반미술상 수상기념전: 바람소리, 물소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아트스페이스 호화, 서울

2022 첫눈에, 학교재, 서울

2021 이인성미술상 수상전, 강요배: 카네이션-마음이 몸이 될 때, 대구미술관, 대구

2020 금강산과 DMZ,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

2018 메멘토, 동백, 학교재, 서울
상(象)을 찾아서, 학교재, 서울

2016 시간의 창, 이중섭미술관, 제주
한국현대미술작가, 강요배: 시간 속을 부는 바람,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2015 이중섭미술상 수상기념전: 소리,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2014 강요배 그림 <소나기> 원화전: 소년, 소녀를 만나다, 그림책갤러리 제라진, 제주

- 강요배 소묘: 1985-2014, 학교재, 서울
- 2013 강요배, 학교재, 서울
- 2011 풍화,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
- 2009 강요배의 습작시절, 제주교육박물관, 제주
- 2008 스침, 학교재, 서울
-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기념 특별전: 강요배 4·3 역사화-동백꽃지다,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 2007 섬 빛깔, 제주문예회관, 제주
- 2006 땅에 스민 시간, 학교재, 서울
- 강요배, 아트스페이스씨, 제주
- 2003 강요배, 학교재, 서울
- 1999 금강산,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학교재, 서울
- 1998 4·3 50주년 기념-동백꽃 지다, 학교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송원갤러리, 광주; 가톨릭센터, 부산;
월성문화관, 대구
- 1995 섬 땅의 자연, 조현화랑, 부산
- 1994 제주의 자연, 학교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 제주 자연, 데미화랑, 광주
- 1992 제주민중항쟁사, 학교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단공갤러리, 대구
- 1976 각(角), 대호다방, 제주

주요 단체전

- 2026 합생: 돌과 미,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제주
- 흐르고 쌓이는,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25 바람과 숲의 대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역사화의 새 지평: 시대를 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24 시대유감(時代有感),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선물,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2023 기억의 파수, 경계의 호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조우,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 2022 생의 찬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어느 수집가의 초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 2021 38°C, 학교재, 서울
- 날씨의 까닭, 기당미술관, 서귀포
- 2020 MMCA 소장품 하이라이트 202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그림과 말, 학교재, 서울
- 2019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대구미술관, 대구; 국립현대미술관, 뉴델리, 인도
- 2018 이야기 사이, 경기도미술관, 안산

- 4·3 70주년 동아시아 평화인권전: 침묵에서 외침으로,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 2017 4·3 미술 아카이브: 기억 투쟁 30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등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2016 아리랑 랩소디,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백화만발 만화방창-백 개의 그림, 만 가지 이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15 아시아의 사회적 리얼리즘 1장: 무망도(无妄島), 학교재 상하이, 상하이, 중국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2014 4·3 미술제: 오키나와 타이완 제주 사이-제주의 바다는 갑오년이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동백꽃 지다: 제주 4·3 담아낸 한국현대미술가, 소노마카운티뮤지엄, 산타로사, 미국
- 2013 섬,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두 섬의 확정,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토니라카 갤러리, 발리, 인도네시아
- 2012 제주·일본 신화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4·3 미술제: 식구(食口),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 2011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리움미술관, 서울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현실과 발언 30년: 사회적 현실과 미술적 현실, 인사아트센터, 서울
화산섬 제주의 삶, 풍경, 제주문예회관, 제주; 우에노노모리 미술관, 도쿄, 일본
- 2009 2009 평화미술제-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08 민중의 고동: 한국 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 반다이지마 미술관, 니가타,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미야코노조 시립미술관, 미야코노조, 일본; 오오타니 기념미술관,
니시노미야, 일본; 후쿠 시립미술관, 후쿠, 일본
- 2007 4·3 미술제: 다시 그 곳에 서서, 제주문예회관, 제주
신화를 삼킨 섬-제주 풍광,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2005 제주-발리, 토니라카 갤러리, 발리, 인도네시아
길에서 다시 만나다, 부산민주공원, 부산; 광주 5·18기념 문화관, 광주; 태백 문화관, 태백;
- 2004 정물예찬, 일민미술관, 서울
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3 깊은-그림, 대안공간 풀, 서울
1901년 제주항쟁기념 역사미술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 2002 4·3 미술제: 테러, 제주문예회관, 제주
민족미술 20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제비울미술관 개관기념전, 제비울미술관, 과천
- 2001 생명으로의 초대, 학교재, 서울
기초/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 2000 광주비엔날레: 인간(人+間),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4·3 미술제: 역사가 서린 땅, 제주문예회관, 제주

- 1999 4·3 미술제: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4·3과 미국, 제주문예회관, 제주
제주미술 맑은 바람, 세종갤러리, 제주
- 1998 우리 들꽃, 사비나갤러리, 서울
4·3 미술제: 상극의 빗장을 열고 상생의 아름다움으로, 제주문예회관, 제주
- 1997 한국의 미를 찾아서, 사비나갤러리, 서울
기당미술관 10주년, 기당미술관, 서귀포
- 1996 전통과 현실의 작가 17인, 학교재, 서울
조국의 산하: 강-내일로 흐르는 삶의 도도함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5 광주비엔날레: 광주 5월 정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해방50년 역사미술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94 민중미술 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4·3 미술제: 닫힌 가슴을 열며, 제주문예회관, 제주; 세종갤러리, 제주
- 1993 코리아 통일미술, 센트럴미술관 아넥스, 도쿄, 일본
십이월전: 그 후 10년, 덕원미술관, 서울
- 1992 제주미술제, 제주문예회관, 제주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 가람화랑, 서울; 갤러리 상문당, 서울; 학교재, 서울; 현 갤러리, 서울
- 1991 우리 시대의 표정-'91 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18인전, 서울미술관, 서울
- 1990 현실과 발언 10년전, 관훈미술관, 서울; 그림마당 민, 서울
새벽의 숨결-동향과 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 1989 민족미술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그림마당 민, 서울
조국의 산하, 그림마당 민, 서울
- 1988 현실과 발언 동인전: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그림마당 민, 서울
- 1987 민족미술협회 반고문, 그림마당 민, 서울; 광주 카톨릭미술관, 광주
- 1986 JAALA, 도쿄도현대미술관, 도쿄, 일본
현실과 발언 동인전, 그림마당 민, 서울
- 1985 한국미술 '85년전, 아람문화회관, 서울
80년대 미술대표작품전, 인사동갤러리, 서울; 이화갤러리, 서울
- 1984 삶의 미술, 아람문화회관,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제3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동인전: 6·25, 아람미술관, 서울
- 1983 시대정신, 제3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동인전, 관훈미술관, 서울
- 1982 젊은 의식, 덕수미술관, 서울
현실과 발언 동인전: 행복의 모습, 덕수미술관, 서울
- 1981 현실과 발언 동인전: 도시와 시각, 롯데화랑, 서울
십이월전, 문예진흥원, 서울
- 1980 십이월전, 남도예술회관, 서울

관점미술동인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1977-80 제1-9회 관점, 대호화랑, 제주

수상

- 2024 호반미술상, 호반문화재단
- 2023 제주4·3평화특별상, 제주4·3평화재단
- 2020 이인성미술상, 대구미술관
- 2018 옥관문화훈장, 문화체육관광부
- 2015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미술관
- 1998 민족예술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주요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전남도립미술관, 광양
- 대구미술관, 대구
- 부국문화재단, 광주

6. 전시 서문

*서문을 발췌하실 경우, 반드시 작성자와 출처를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 되기-세계 되기¹; 강요배의 생태적 '아모르 문디'

김보라(홍익대학교 회화과 외래교수)

1

“바깥을 바라보는 자는 꿈을 꾸고 내면을 향한 자는 깨어난다”²고 카를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어느 편지에 썼다. 개인의 무의식에서 집단 무의식 탐구로 연구 영역을 확장해 나아간 분석심리학의 창시자로서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장이다. 강요배 역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 예술이라고 본다. 그는 자신을 알기 위해 고향의 역사를 공부³했으며 불혹의 나이에 귀향하여 30여 년간 제주를 그려오고 있다. 그의 그림에서 4:3이라는 쉽게 봉합되지 않는 아픈 상처를, 제주도의 환상적인 하늘을,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섬 바람을 마주한다. 제주의 바람은 강요배의 그림 <창파(滄波)>(2015)에서처럼 온 바다를 뒤집어 놓을 듯 성난 모습이었다가 어느 새 봄의 전령사 매화의 꽃망울을 터뜨리는 데 힘을 보태는 포근한 조력자로 변신한다.

세심한 관찰과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섬의 시간과 자연을 연구해온 화가의 그림과 더불어 우리는 제주의 다양한 면면을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영등바람>(2026)은 입춘 전에 부는 강한 북서풍으로 이 바람이 불어올 즈음 제주 신화를 대표하는 여신 영등할망을 기리는 곳을 치르며 애기 엮은 바위가 있는 <비양도>(2024)는 제주 서쪽의 작은 섬으로 가장 나중에 형성된 화산체임을 알게 된다. 코끼리바위가 쿠르베나 인상주의 화가들이 즐겨 찾던 프랑스 노르망디 에트르타(Étretat)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비양도에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한다. 화가의 신체를 통해 구현된 이미지는 하나의 멈추어진 화면으로 감상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처럼 여러 이야기를 함축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한 강요배의 예술은 제주의 문화, 기후, 지형을 이미지로 옮긴 방대한 역사생태 보고서다. 아울러 나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작업이 곧 인간과 세계 이해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

¹ 섬 되기-세계 되기(Islanding-Worlding)라는 제목은 2024년 9월 11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강요배의 호반미술상 수상 기념 전시 연계 세미나에서 필자가 「품는 회화: 강요배의 작품 세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2BUXt8qJi9Y> 참조 (2026년 7월 15일 최종 접속). '섬 되기'는 세미나 이전인 2024년 8월 27일 강요배의 작업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중 작가가 사용한 단어에서 착안한 것이고 '세계 되기'는 인간과 비인간의 공생을 강조한 미국의 사상가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 1944-)에 기대어 쓴 표현임을 밝힌다. '섬 되기'와 '세계 되기'가 긴밀하게 얹혀있다는 의미에서 붙임표를 사용하였다.

² C.G.Jung, "Letter to Fanny Bowditch," 22 October 1916, in *C.G.Jung Letters, Volume I: 1906-1950*, eds. Gerhard Adler and Aniela Jaffé, trans. R.F.C.Hull (London: Routledge, 1973), p. 33.

³ 강요배 글·그림, 『풍경의 깊이』 (파주: 돌베개, 2020), p. 27 참조.

2

‘세계에 대한 사랑’이라 번역될 수 있는 라틴어 ‘아모르 문디(amor mundi)’는 독일 태생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개념으로 대표 저서인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1958)을 집필할 당시에 구상했던 주제⁴였다. 아렌트는 이 책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랑은 본질상 무세계적이다. 드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무세계성 때문에 사랑은 정치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반정치적이며, 아마도 반정치적인 모든 인간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할 것이다.”⁵ 그녀가 말하는 아모르 문디는 인간 사이 감정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강요배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그의 예술이 여러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음에 관심 갖고 있는 나는 인간과 비인간,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용어로 아렌트의 개념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소, 반색》(2026, 학교재, 서울)에 포함된 28점 가운데 가장 주목하는 작품은 <해바라기-쿠르스크>(2025)와 <흑등아귀>(2025)다. 이 두 그림은 화가가 TV에서 본 장면에서 출발한다. 하필 두 이미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강요배는 그림이 다가온다고 말한다. 지도에 표시해가며 제주 곳곳을 답사하고 한라산의 별을 스케치하고자 야산에서 밤을 지새웠던 그였지만 귀덕화사(歸德畵舍)에 정착한 이후에는 주로 일상과 자연, 내면의 리듬을 예민한 시선으로 살피고 있다. 관찰은 그저 바라보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자를 수용하는 행위인 것이다. 눈 밝은 자는 경청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화가는 자신에게 다가온 소재를 면밀히 관찰한 기억을 그림으로 옮긴다. 이른 새벽과 해질녘의 하늘, 귀덕화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고양이, 정원에 날아든 새,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 산책길에 본 나팔꽃과 목련이 다채로운 도구를 활용한 붓질과 화면 재질감을 통해 화폭에 담긴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해바라기-쿠르스크>를 이전 시기 작품들과 연결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동명의 책 제목⁶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인 <동백꽃 지다>(1991)는 설경을 배경으로 동백꽃 한 송이가 떨어지고 있는 찰나를 보여준다. 저 멀리 눈발에는 무기를 든 자와 쓰러진 자들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인다. 인간이란 어느 쪽에든 속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폭력 앞에 무너져 내린 이들의 붉은 피가 새하얀 눈발에 스며든다. 동백꽃과 같은 색이다. 이 작품 이후 동백꽃은 4:3의 상징이 되었다. 붉은 동백꽃이 하얀 눈 위로 툭 떨어지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일이다. 지상에서의 삶을 다하는 시간은 이처럼 갑자기 온다. 생명이란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질 거란 착각에 빠져 살지만 어느 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까. 바니타스 정물화가 전하는 교훈처럼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죽음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다. 고군분투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 자체가 애뜻해질 수밖에 없다.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미워할 틈이 어디 있겠는가.

⁴ 아렌트는 1955년 8월 6일 스승 야스퍼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쓰고 있는 정치철학 책 제목을 ‘아모르 문디’로 붙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로테 퀴라한스 자너 엮음, 『한나 아렌트-카를 야스퍼스 서간집 1: 1926-1969년』, 홍원표 옮김 (서울: 신서원, 2024), p. 501 참조.

⁵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 242;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파주: 한길사, 2019), p. 349.

⁶ 강요배, 『동백꽃 지다』 (서울: 학교재, 1998) 참조.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반목과 갈등, 폭력과 불화로 가득하다. 세상이 아름답기만 하면 아름다움의 빛이 퇴색할 것이다. 인간이 모두 선하다면 선함의 가치가 희미해질 것이다. 모든 게 진실이라면 그토록 진실을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삶이란 사랑과 증오, 아름다움과 추악함, 기쁨과 슬픔,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경계에서 펼쳐지는 과정 자체일지 모른다.

<동백꽃 지다>와 <해바라기-쿠르스크>는 설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불혹을 앞둔 화가가 동백꽃으로 고향의 아픈 역사를 대면했다면 이제 70대 중반의 나이로 접어든 그는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꽃인 해바라기를 그렸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꺾인 해바라기는 짙은 갈색과 청색으로 그려져 배경의 하얀 눈과 대조를 이룬다. 이 작품을 50여 년 전 그림인 <해바라기가 있는 자화상>(1972)과 비교해보는 것 또한 흥미롭다. 청운의 꿈을 안고 막 육지로 떠난 시점이었을 약관의 화가는 입술을 꼭 다문 다부진 표정이다.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눈빛으로 화면 바깥을 응시하는 그를 양옆에서 수호신처럼 감싸고 있는 것은 해바라기 꽃이다. 노란색과 진청색을 주조색으로 한 화면은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가 『색채론(Zur Farbenlehre)』(1810)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의 양극성으로 제시한 황색과 청색의 대비를 연상시킨다.

과거의 작품에 비해 <해바라기-쿠르스크>에서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징은 빠른 필치와 담채, 간략화된 형태로 이는 오랜 세월 화가가 재현적 양식이 아닌 '마음의 풍경'에 집중한 결과다. 대형 역사화와 풍경화에서 다져진 강요배의 붓질은 동식물을 그릴 때에도 어김없이 나타난다. 생동감을 포착하는 느낌과 긴 시간 동안 체화된 감각이 관건인 것이다. 펄펄 뛰는 생선을 그물망으로 건져 올리는 듯한 생생함을 포착하고자 짧은 시간에 속도감있게 완성하는 기민함, 망설임 없이 내리긋는 단호함, 화면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즉흥성과 우연을 수용하는 자세는 수십 년간 그림을 그려온 화가이기에 가능한 예술적 경지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강요배가 강조하는 것은 감각의 환기다. 거센 바람이 세상의 모든 대상을 휘감듯이 기백(氣魄) 어린 일필휘지 속에서 뚜렷한 윤곽과 형태는 희미해진다. 전시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현무암처럼 거칠고 메마른 마티에르와 빠르게 내리긋는 선이 있는가하면 수분을 잔뜩 머금은 붓질, 반복적으로 찍거나 긁어낸 부분이 보인다. 묽은 물감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흩뿌려진 점들도 확인된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점은 화면을 벗어나고 있는 형태와 다각적 시점의 도입이다. 이를테면 <무청(無靑)>(2025)이나 <뚝배들>(2023)에서처럼 사각형 캔버스에서 이탈하려는 형태적 요소나 <무청(無靑)>에서 보이는 부감법, <나무>(2025) 연작에서 확인되듯 대상에 바짝 다가간 듯한 과감한 시선이 화면에 역동성을 더해주고 있다.

4.3을 직접 겪지 않은 화가가 문학작품과 생존자의 증언 기록, 사료를 연구하여 상상으로 이미지를 빚어냈듯이 그의 예술은 사진적 재현 대신 온몸으로 느낀 감각과 정서, 생동감의 구현을 지향한다. 대상을 앞에 두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찰에 근거하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옮겨내는 것이다. 특정 인물이나 영웅이 아닌 민중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공부를 바탕으로 역사적 장면을 창안해냈던 때처럼 그는 구체적 자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억을 그린다. 따라서 캔버스를 마주하고 작업을 실행하는 시간 자체보다 작품에 담을 이미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머금고 있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주로 서양화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강요배의 작품세계를 서구 회화의 장르 개념인 역사화, 풍경화, 정물화, 동물화, 식물화로 나누거나 전통적 필획이 보인다고 해서 동양화의 구분법대로 화조화, 영모화, 화접도 등의 개념으로 구분하는 작업은 무의미할 것이다. 제주의 자연과 시간, 그리고 화가를 둘러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은 구멍 난 가슴을 잇는다. 인간 보편의 감각을 토대로 한 예술의 세계에서 너와 나, 동양과 서양의 경계는 사라진다. 고향의 역사적 비극을 그렸던 화가는 35년이 지난 후 전쟁터의 해바라기 밭과 인간에게 포착된 흑등아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림으로 옮겨냄으로써 세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는 듯하다. 화가가 보았으리라 추정되는 TV 영상을 찾아보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바라기 재배 농가의 피해를 보도하는 뉴스와 스페인 어느 섬 인근에서 심해어가 발견된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기후위기 및 생태계 변화로 분석하는 방송 자료가 있었다. 뉴스 속 삭막한 해바라기 밭과 달리 강요배가 빠른 필치의 담채로 옮겨낸 해바라기는 까맣게 말라 비틀어져 있음에도 아름답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찾아본 흑등아귀는 ‘악마의 물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으스스한 모습이지만 화가의 그림 속 흑등아귀는 낯설고도 경이롭다. 컴컴한 바닷속에서 머리에 달린 촉수로 빛을 발하며 화면 바깥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흑등아귀는 날카로운 이빨과 온몸에 돋은 가시, 끝이 보이지 않는 입 안의 검은 구멍을 지닌 신비로운 생명체인 것이다. 소멸위기에 처한 수많은 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심해의 생태계가 전체 바다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존재로 알리려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화가는 회화를 통해 숨겨진 아름다움을 추출해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림의 마법일 것이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림은 우리를 영원성의 시간으로 이끈다.

3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제주도의 외양 뒤에 숨겨진 이름 없는 민중들의 희생과 고통을 그림으로 옮겨냈던 화가의 시선은 <녹음(綠陰)>(2025)에서와 같이 여전히 그늘이나 그림자, 빛 뒤에 가려진 어둠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 1821-1867), 도스토옙스키(Fyodor Dostoevsky, 1821-1881) 등 위대한 예술가들이 우리 앞에 펼쳐 낸 세계이기도 하다. 강요배의 화폭에는 나무에 수많은 열매가 달려 있는데도 굳이 열매 하나를 갖고 치열하게 다투는 새들(<열매 한 알>)과 성난 물고기, 검푸른 바다에 휘몰아치는 파도가 등장하는가하면, 꽃과 어우러진 나비(<범부채>), 오랜 나무에서 꽃을 피어낸 청매화(<청로(靑老)>), 스러져 가는 생명 안에 깃들여 있는 아름다움과 평온한 하늘이 담긴다. 일견 상반되어 보이는 것들을 감싸 안으며 세상을 받아들이는 너른 마음은 화가의 오래 전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76년 제주에서 개인전이 열렸던 당시 쓴 글에 청년 강요배는 “힘들지만 좋은 세계”⁷라고 적었다. 이러한 태도는 아렌트가 말한 ‘아모르 문디’와 맞닿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기후위기와 끝없는 전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생과 평화를 지향하는 자세와도 이어질 것이다.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는 <안개 속에서(Im Nebel)>(1905)라는 시에 “피할 수 없이 그리고 나직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그를 갈라놓는 어둠을 모르는 자 정녕 그 누구도 현명치 않다”⁸고 썼다.

⁷ 강요배 글·그림, 『풍경의 깊이』, 파주: 돌베개, 2020, 234쪽.

⁸ “Wahrlich, keiner ist weise, Der nicht das Dunkle kennt, Das unentrinnbar und leise von allen ihn trennt.”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서두에 인용한 용의 문장이나 강요배의 입장과 공명하고 있는 구절이다. 그의 그림은 언어로 옮길 수 없는 존재의 심연과 생명의 신비를 보여준다. 온통 투명함이 지배하는 세상, 수많은 것들이 숨 가쁘게 생성되고 소비되는 효율성의 시대에 불명확성과 느낌에 대한 감각, 계절의 순환과 연결된 나만의 리듬에 주목하는 시간을 제안한다. 소서(小暑)를 막 넘긴 7월의 비 내리는 오후, 귀덕화사를 뒤로 하고 접어든 중산간도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로 가득했다. 강요배의 <은은경(隱隱境)>(2024)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인간이 슬하게 나누어놓은 것들을 묶어내고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임을 떠올리는 순간이었다.■